

더불어 민주당 편사니즘위원회 25.05.15(금)	보 도 자 료 담당: 김현호 선임비서관·강현구 비서관 연락처: 010-2973-8830
---	--

진짜 대한민국, 편사니즘위원회 출범회의 및 정책제안식 개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편사니즘위원회(김태년·진선미 공동위원장)가 5월 15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회의 및 정책제안식을 개최했다.

편사니즘위원회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 국민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해 국민이 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편성되었다.

위원회 산하에는 한반도평화경제위(위원장 정동영), 동북아평화협력위(위원장 위성락), 북한이탈주민위(위원장 송재봉), 국방안보위(위원장 황인권), 경제안보위(위원장 김태년), 보훈국가정체성위(위원장 황기철), 재난재해대책위(위원장 한병도), 국민안전사회위(위원장 김교홍)가 있다.

이번 출범회의 및 정책제안식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상임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여준 상임총괄위원장과 정책 부분을 맡고 있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편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겸 경제안보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며, “경제안보위원회의 목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질서 속에서 당당히 주도권을 쥐는 나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고 포용과 혁신이 공존하는 ‘진짜 대한민국’ 을 만드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공동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안보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며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가는 방향” 이라고 밝혔다.

윤여준 상임총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선 안된다” 며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평화를 다시 구축하고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고 밝혔다.

정동영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목적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지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사람, 물자, 차량이 남북을 오가는 작은 통일의 장이었기에 이러한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황인권 국방안보위원장 예비역육군대장은 “ ‘국방은 민주당’ , ‘민주당은 안보’ 라는 슬로건아래 강한국방. 튼튼한안보 지속 가능한 평화유지를 위해 K국방, K안보, K방산을 발전시켜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송재봉 북한이탈주민위원장은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며, “북한이탈과 사회통합을 넘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고 전했다.

황기철 보훈·국가정체성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폄하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의 자주 독립정신을 해쳐왔다” 며, “민주가 하나되어 지켜낸 애국의 나라인 만큼 독립, 호국, 민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교홍 국민안전사회위원장 “지난 3년 간 이태원참사부터 오송지하차도참사, 여객기참사 등 대형참사로 죄없는 국민들만 희생됐다” 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엄중하다” 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병도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예고없이 찾아온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뼈아픈 교훈이 남았다” 며, “오늘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재난재해대책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편사니즘위원회는 위원회별 지원유세와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 붙임 : 출범회의 사진

